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 2016년 제7차 지역분과 회의자료(7월)

구 분	내 용
협의체 사회적 비전 & 미션	<b>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b>
지역분과 목표	참여와 협치로 지역복지공동체를 실천하는 지역분과

○ 일 시 : 2016. 7. 14.(목) 10:00

○ 장 소 : SK청솔노인복지관

○ 진행순서

1. 신규위원 위촉

2. 공유사항

1) 기관별 행사, 정책 변동사항 공유

2) 전차회의결과

3. 안건토의

1)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내용 검토

2) 인권토론회 이후 지역분과 역할 논의

3) 지역분과 향후 일정 논의

4. 차기회의 일정

## 1. 신규위원 위촉

기관명	이름	직책	담당업무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안지원	팀장	자활근로 사업단(양곡택배, 간병)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유철호	부장	복지관 업무 총괄

## 2. 공유사항

### 1) 기관별 행사, 정책 변동사항 공유

- 협의체 : 7/19(화) 비전공명프로젝트 캐물음 워크숍 (TFT위원 참여)  
7/20(수) 16:00 3차 위원 교육

### 2) 전차 회의결과

※ 붙임자료

### 3. 안건토의

#### 1)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분석 내용 검토

※ 예산분석 1차 자료 검토 <별첨>

#### 2) 인권 토론회 이후 지역분과 역할 논의

##### ○ 토론자 의견

###### ▷ 김종해(가톨릭대 교수)

-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 높은 직업 자긍심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과 개관적 환경사이에 괴리 존재.

병원의 환자 이용 규칙 같은 복지기관(시설) 이용 규칙도 필요함을 제안.

-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기관간 편차 존재, 편차를 줄이기위한 노력
- 사회복지사의 인권 존중.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대변자이지 봉사자가 아님. 희생과 헌신은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으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 필요.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 대해 다시 해석 필요

###### ▷ 이상남 (비전업지역아동센터장)

- 현재의 처우개선은 가장 열악한 시설의 처우를 빼고 개선하는 상황  
열악한 소규모시설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함께 가는 사회, 함께 가는 수원의 인식을 기대

###### ▷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 한국 사회복지의 구조적시스템에 의한 복합적 관계 존재. 법인-시설-시설 내 종사자. 복합적 관계에서 종사자의 인권을 살려야함.
- 복잡하고 어려운 현 시대적 상황속에서 사회복지는 무거운 일임과 동시에 꼭 필요한 일. 사회복지사는 Ct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변자의 역할 수행해야 함. 이용자의 권리 뿐 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리 필요.

###### ▷ 오동석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

-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정책적 피

드백이 있어야 유의미한 과정.

- 자긍심, 열정페이는 착취의 이데올로기
- 조례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에 대한 구체적 명시 필요. 권리구제 절차 체계화되어야 하며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의 역할하겠음.

### ○ 지역분과 위원 의견

- 소규모기관에 대한 별도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론회 이후 액션 필요. 분과에서 역할 할 수 있을지 고민  
(소규모시설, 생활시설 인권조사 등 )
-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할 수 있는 후속작업 검토 필요
-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이용자 수칙, 수탁시 조항 추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대처방법 등 매뉴얼 작업이 필요함.  
차후에도 지역분과에서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함.
- 지역분과 인권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며, 활동 범위,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LOUD 프로젝트처럼 인권중심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LOUD는 거대한 개혁을 논하기보다 우리의 매일을 피곤하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함께 고쳐나가는 프로젝트)
- 정책제안 등 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분과의 역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용자 수칙 조사, 위탁조항 검토, 타시군자료 조사 등
-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필요.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자리 필요함
- 지역분과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인권 교육시 상호 존중 캠페인,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이용자 공감과정 등
- 인권 관련 현재의 법, 조례 등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 복지시설의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자가 불편한 부분을 찾는 모니터링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인권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
-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체계 필요. 담당부서의 대처법 등도 마련.  
매뉴얼 및 제도화 필요함

### 3) 지역분과 향후 일정 논의

※ 예산분석, 인권토론회 개최 이후 활동 등

월	예산분석	종사자 인권
8월	-	
9월		
10월		
11월		

## 지역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안)

### 2) 예산분석 및 정책제안

- 관점 :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총 6곳을 비교분석
  - 타 지자체 비교분석 뿐만 아니라 예산 기준에 따른 운용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추가 실시
  - 정책의 집행부분 세밀히 검토
  - 실질적 분석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행안부, 도청정책 공유)
  - 수원시 자체사업(시비100%)과 타 지자체(동종단체) 비교
  - 수원시 모범사업과 타 지자체 우수사업 비교 후 정책대안 마련
  - 칭찬 및 대안 제시
  - TFT회의 정례화 : 매월 지역분과 본회의 30분 전  
=분과회의 시 내용공유
- (단, 예산분석 및 정책대안에 대해 결정위임은 TFT에 위임)

### ○ 세부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3월	- 분과 워크숍 (세부사업 논의) - TFT 회의 개최(토론회 준비, 예산분석 준비)	
4월	- TFT 회의 (토론회 준비, 예산분석) - 세부내용 공유 및 일정 확정	
5월	- 토론회 홍보 - 예산 기본 데이터 취합 (수원시, 동종단체)	
6월	- 토론회 개최 - 예산 1차 분석자료 슈퍼비전 (교육, 슈퍼비전)	
8월	- 토론회 평가, 정책제안 - 2차 분석 수정 보완	
9월	- 예산분석 보고서 발간	
10월	- 예산분석 정책제안	
11월	- 결과보고, 사업 총괄 평가 및 차년도 계획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2016년 6차 지역분과 토론회평가회 결과

일 시	2016. 6. 16.(목) 11:00~12:00	기록	임복희	확인	김상두, 김명진	
장 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					
참석자	12명 참석					
	김명진	광고노인복지관 부장	○	권미정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문승주	버드내노인복지관 부장	○	정재원	밤밭노인복지관 부장	○
	이은선	수원중앙복지재단 과장	○	진은정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자	○
	김규엽	SK청솔노인복지관 부장	○	임숙자	서호노인복지관 부장	○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	안지원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팀장	○
	유철호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	○
회의주제 및 안건	<b>지역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b>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 평가회					
회의결과	<b>■ 토론회 개요</b> ○ 일 시 : 2016. 6. 10.(금) 14:00 ~ 16:00 ○ 장 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2층) ○ 참석대상 : 수원시민, 사회복지 민·관 관계자 등 100여명 ○ 내 용 ▷ 사 회 : 김명진(광고노인복지관 부장/ 지역분과 위원장) ▷ 주제발표 I • 주 제 :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 성과 • 발표자 : 심정애 (수원시 사회복지과장) ▷ 주제발표 II • 주 제 :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 제언 • 발표자 :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분과위원) ▷ 토 론 • 좌 장 :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실장/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권익분과위원장) • 패 널 :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남 (비전업청소년학교지역아동센터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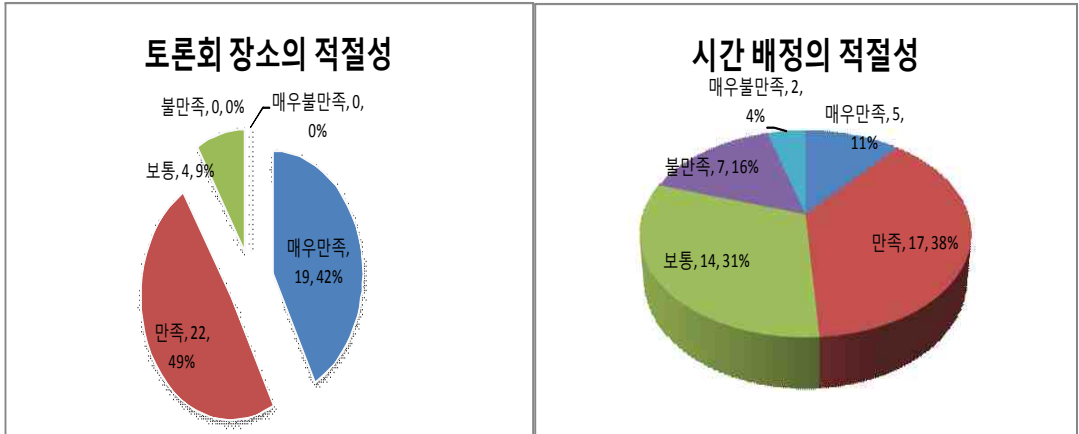
□ 토론회 진행결과

- 참석인원 : 157명(133명, 공무원 24명)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5명)

1. 환경 및 진행 만족도

1) 토론회 장소 적절성

2) 시간배정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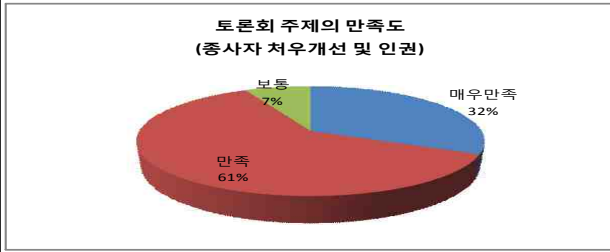
※장소 및 시간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 주시면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 토론자 시간배분 아쉬움
- 플로어에서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
- 점심 바로 이후는 졸음이 찾아와 잠깐힘들었음
- 패널 발표시간 배분문제
- 휴식시간이 있었으면
- 토론주제가 명확하고 사전토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배정(토론발표자)이 충분히 협의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근무시간 중간이라 어쩔정함 10시 부터나 4시부터가 좋겠음
-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시간이 길었음
-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목소리는 따로 만나서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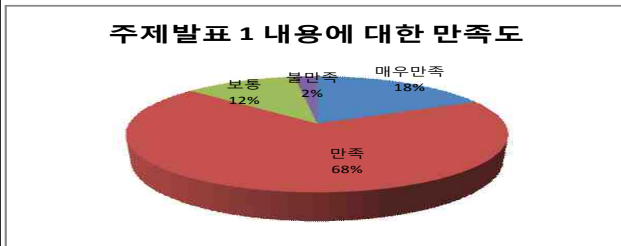


## 2. 토론회 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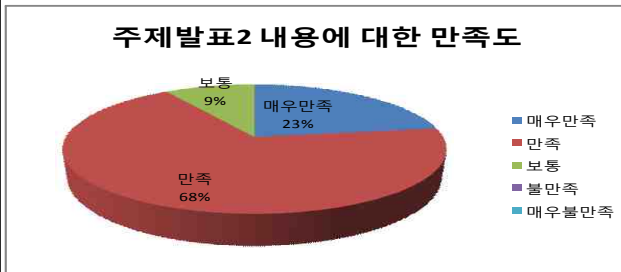
### 1) 토론회 주제 만족도(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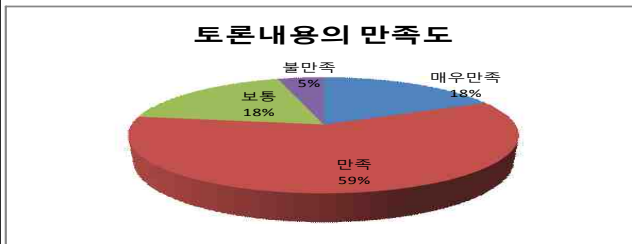
### 2) 주제발표1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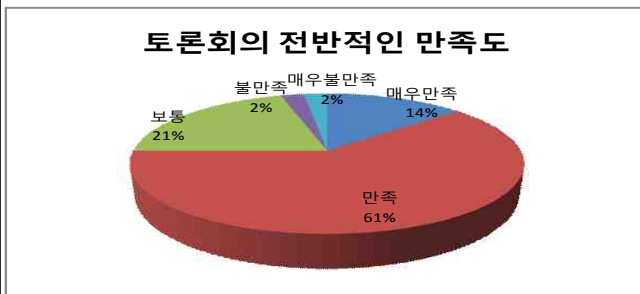
### 3) 주제발표2 내용에 대한 만족도



### 4) 토론내용의 만족도



### 5) 토론회 전반적 만족도



※ 토론회 내용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다음에는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 계획 추진자체가 형평성이 없어 보임
- 중복된 문제 제시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액션이 없음 토론자가 너무 많음
-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요
- 시간배정으로 시간을 넘김
- 토론의 핵심이 모호하다. 너무 많은 발표자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요식 행위에 치우쳤다. 시간약속을 지킵시다.
- 가장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거 아닐까요?

※ 수원시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및 토론회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있으면 적어주세요.

-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급여문제 같은 호봉의 대체인력이 아닌 계약직 적은 기본 급여문제, 결국서무로 활용, 본 사업은 다른 직원이 나누어서 하게되는 구조, 육아휴직 시 죄짓고 들어가는 듯함
- 조직문화 갑질개선 필요 공무원의 권위적인 강압적인 언어사용, 추진 등
- 소규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단독 연구(조사포함) 필요
- 이용시설위주의 연구 방향제시여서 앞으로는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회 주제가 종사자처우개선만큼 실무자 중심의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 더 적절한 듯으로 보임
-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음(이용자를 대하는 실무자가 인권피해를 당하거나 자신도모르게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사례를 근거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만족한다.
- 처우개선과 동시에 복지이슈(아젠다)를 이끌어 가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준비해 주십시오.
- 제도적 차원 문제 중에 관과 민의 관계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가 앞으로 필요함
- 종교적 인권문제는 위탁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있으면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 처우개선=경제적 지원에 국한한 토론보다는 이용자로 부터의 폭언, 스트레스에 대한 인권, 처우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다루어주셨으면

-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여를 하루, 복지를 하루, 환경을 하루, 정책으로 하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집중력이 현저히 낮음

□ 지역분과위원 토론회 평가의견

- 준비과정 원활하였으며,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도 좋았음. 시간관계상 토론자들의 구체적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 아쉬움. 종사자 토론자 섭외가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였으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임.
- 참여자들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고 생각됨. 처우개선은 인권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음.
- 소규모기관에 대한 별도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토론회 이후 액션 필요. 분과에서 역할 할 수 있을지 고민 (소규모시설, 생활시설 인권조사 등 )
-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할 수 있는 후속작업 검토 필요
-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이용자 수칙, 수탁시 조항 추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대처방법 등 매뉴얼 작업이 필요함. 차후에도 지역분과에서 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함.
- 지역분과 인권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며, 활동 범위,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 필요. \*LOUD 프로젝트처럼 인권중심 움직임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LOUD는 거대한 개혁을 논하기보다 우리의 매일을 피곤하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집중하고 함께 고쳐나가는 프로젝트)
-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지원하고 정책제안의 통로가 될 수 있을것임. 협의체를 통해서도 가능
- 정책제안 등 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분과의 역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이용자 수칙 조사, 위탁조항 검토, 타시군자료 조사 등
-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가 필요.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자리 필요함
- 지역분과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인권교육시 상호 존중 캠페인, 인권침해사례를 통해 이용자 공감과정 등
- 인권 관련 현재의 법, 조례 등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복지시설의 환경적 측면에서 이용자가 불편한 부분을 찾는 모니터링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인권적 접근이 가능할 것임</u></li><li>- <u>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체계 필요. 담당부서의 대처법 등도 마련. 매뉴얼 및 제도화 필요함</u></li></ul>
--	--------------------------------------------------------------------------------------------------------------------------------------------------------------------------------------------